

넥센타이어, 영업이익 200% 폭증

2009년 매출액 9000억원 달해 ... 내수·수출 모두 균형적인 성장

넥센타이어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업이익이 2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센타이어는 2009년 매출액이 966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622억원, 당기순이익은 1143억원으로 국내시장에서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수출과 내수가 골고루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매출액은 전년대비 28%, 영업이익은 202%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매출액 부문은 전년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2010년에는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2009년 경쟁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차별화 된 해외마케팅 전략과 철저한 재고관리로 업계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낼 수 있었다”며 “2010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넥센타이어는 2010년 투자규모 1조원대의 경상남도 창원 제2공장 건설에 들어갈 예정으로 양적인 부문은 물론 질적인 부문에서도 고속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종만 대표이사는 “세계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불황에 빠져 대부분 수익성과 외형성장세가 크게 약화된 것과 달리 넥센타이어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타이어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1/27>